

데스크 시국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광주 문단(文壇)이 늙어가고 있다. 그것도 지극히 빠른 속도다. 일반적인 산업계와 노동계의 고령화는 익숙하지만 지역 문학계의 고령화는 낯선 화두다. 혹자는 예술의 특성상 나이와 무관하게 창작을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 것 같다.

물론 생로병사(生老病死)와 맞물린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문제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저출생의 상황에서 고령층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출신율이 고등과 교육 인프라등 다양한 요인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0~30대 청년 작가 비율 미미

광주의 문학 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단체가 광주전남 작가회의(작가회의)와 광주문인협회(문협)다. 두 단체에 소속된 문인들의 연령이 평균 60대를 넘어섰다. 20~30대 젊은 작가들의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문단의 고령화 또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작가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소속 회원은 모두 350여 명이다. 이 가운데 40대가 15%, 50대 30%, 60대 30%이며 나머지 20%가량이 70대 이상이다. 40대 미만은 전체의 5% 내외일 만큼 젊은 작가들의 비율은 미미하다.

문협 사장도 작가회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작가회의보다 사정이 더 심각한 편이다. 현재 문협에 등

은펜칼럼



임명재 약사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제), 불수호랑행(不祥獐行: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금일야행적(今日我行跡: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수자후인정(遂作後人程: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이 시는 조선 후기의 문신 이양연의 시이며 김구 선생님의 애송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시는 공인이나 지도자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기록될 수 있으니 각별히 말이나 언행을 주의해서 국민들과 후세에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위대한 조상들로부터 훌륭한 유전적 인자를 물려받았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토록 수많은 침략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다.

그러한 원동력은 아무 때나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기 고



이중섭 소설가

몇 달 전부터 밥 한 끼 산다는 그녀를 만났다. 조그만 횃집이었다.

“환갑이 다 되어 좋은 친구를 알게 됐어.” 차가운 바깥에서 막 들어와서인지 그녀의 두 볼이 빨갳다. 그녀에게 남자 친구가 생겼다는 말인가? “여기 소설에 사인해 줘.”

그녀는 내 소설책 두 권을 내놓았다. 주문한 음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책을 펼쳐보니 군데군데 메모와 줄이 그어져 있었다. 다른 페이지에는 어디에다 줄을 그었는지 호기심이 일었다. 처음부터 천천히 책을 넘겼다. 모듬회를 포함한 음식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왜 그래? 부끄럽게.” 그녀는 씩스러운 듯 웃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내 책에는 어디에다 줄을 긋는지 궁금해서...”

소주도 한 병을 주문했지만 배가 고파 밑반찬에 먼저 손이 갔다. 밑줄을 그은 부분은 내 생각과 달랐다. 힘을 쥐었던 부분이 아니라 조금 다른 곳이었다. 사유보다 풍경이 그려진 문장이 더 많이 그어져 있었다. 단편소

광주 문단(文壇) 고령화에 대한 단상

특된 회원은 730여 명이다. 이들의 연령 별 구성을 보면 65세 미만은 180여 명, 65세 이상 80세 미만 380여 명, 80세 이상 170여 명이다. 65세 이상이 거의 80%에 달할 만큼 연령별 구성을 보면 ‘초고령화 단체’다.

물론 문학단체의 고령화는 지역의 노령화와 맞물려 있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청년 인구는 2020년 41만 400여 명에서 2021년 40만 3996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39만 2484명으로 줄면서 40만 명의 벽이 깨졌다. 통계청이 예측한 장래 인구 추이에서도 2040년 광주시 청년인구는 25만 3452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의 상황에서 녹록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행안부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 가운데 전남이 16곳이나 될 만큼 전남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처럼 출산을 저하와 맞물린 고령화는 문단 또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어쩌면 산업계와 노동계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숙련된 근로자의 기술과 노하우, 경험은 산업 전반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문학 단체나 예술 단체의 고령화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창작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진부한 작품, 낡은 세계관에 매몰되는 경우다. 새로운 작품, 새로운 세계관을 통해 전혀 다른 세계를 그려내는 게 작가의 본분이다. 그것이 문학의 본질이고 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이자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호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데미안’은 문학을 지망하는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 읽었음 고전이다. 지금의 50~80대 문학인들도 청춘의 시절, 불안과 좌절에 얽매인 주인공 싱클레어를 통해 인간의 고뇌에 대해 깊

답설야중거

아니다. 그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바로 사람이다. 누군가 앞장서서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모으게 된다. 이러한 조화, 국민들과 지도자의 조화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 항상 국민들이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걸어야 할 철학적 자세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마땅한 대상자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핵심 권력은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이다. 대통령 자신이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정해 놓고 시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부처 장관들을 비롯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과 방법, 열정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들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당선 1년은 계획하고 검토하고 공무원들을 설득하며 지나가고 그 후에는 그것을 실행을 준비하는데 소모하고 그러다가 남은 1년은 또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

작은 지방자치단체도 그러하듯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어떠한가? 대통령이 뜻을 세우고 청사진을 보여 주면 국민들은 미래를 마음속으로 그려 보면서 그 정권을 지지하고 참여해서 좀 더 발전된 대한

고향 풍경 속의 그녀

설 ‘직박구리가 사는 은행나무’의 마지막 부분에도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 부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

섬뜩했다며 살짝 몸을 떨었다. 죽은 선배가 직박구리가 되어 날아와 나무 위에서 화자가 있는 창가 쪽을 쳐다보는 장면이었다. 약간 의도하여 썼지만 그 정도였다 싶었다. 가만 보니 풍경 속의 나무와 새 그리고 꽃들이 그려진 부분에 밑줄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긴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도시에 와 사는 우리 나이 때의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을 듯싶었다. 그리고 보니 그녀의 걸어온 길이 나와 거의 비슷했다. 초등과 중학교를 고향에서 다녔고 고등학교부터는 광주에서 자취 생활을 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시골에 부모가 있어 자주 내려가는 그런 삶들이 비슷한데 서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겠는가. 한 고장의 풍습이 한 사람의 삶을 형성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임이 틀림없다.

“산으로 동장 모임으로 다 돌아다녔는데 맘에 들지 않았어. 이제야 진정한 친구를 얻었어. 책처럼 좋은 친구가 없더라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속에 있는 한 문장이 떠올랐다.

“이 세상 도처에서 실 곳을 찾아보았으며 마침내 찾아낸, 책이 있는 구석방보다 나은 곳은 없더라.”

구석방, 다락방, 도서관. 책이 있는 모든 공간은 고단한 영혼의 안식처가 분명했다.

이 횃집은 소리와 전복이 심상했다. 하루 일출 마치고 허기진 상태라 사실 모든 음식이 다 맛있었다. 그녀

이 속고했을 것이다.

물론 단순한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문단의 고령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실일 게다. 예술은 특히 문학은 작가의 나이보다 창작의 사유를 어떻게 풀어내고 작품에 반영하는가가 중요하니까. 작가의 물리적 나이가 많다고 그의 창작물이 진부한 것은 아니며, 젊은 작가가 해서 반드시 참신한 작품을 쓰는 것도 아니다. ‘젊은 작품인지 노후한 작품인지’ 판단하는 근거는 독자들에게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 작가 자신이 더 잘 안다.

젊은 작가 유입 방안 마련돼야

안타깝게도 작품 속에 언술되는 사유와 물리적인 나이는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청장년의 사유를 담아내기 위해선 ‘빠를 짚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의 전제는 체력과 근기와 열정이다. 무모한 욕심이나 이상만으로 되지 않고 생물학적 나이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 작가회의와 문협 회장이 새로 뽑혔다. 정양주 작가회의 회장은 “젊은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개발위원회와 젊은 작가 포럼을 활성화 계획”이라고 했다. 이근도 문협회장은 “기관지인 ‘광주문학’을 통해 신인 작가들을 등단시키고 젊은 회원들의 참여를 권인하겠다”고 말했다.

젊은 작가 유입을 상징한 두 단체의 복안은 나름 기대할 만 하다. 무엇보다 이들의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예술 정책과 정교하게 호응해야 가능할 것이다. 문화 중심 도시란 무엇인가. 문화를 매개로 한 일자리가 많고 문화가 ‘밥’이 되는 그런 도시를 상상할 수 있겠다. 올해는 젊은 작가들의 참여로 고령화된 문단에 새바람을 불어넣었으면 한다.

민국을 건설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살기 좋은 국가를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양연의 시를 무색하게 한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더 경쟁력이 큰 것은 자유로움에 있다. 심지어 같은 편이라도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자는 못 견뎌 하고 있다. 너무나 어지럽게 걷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발자국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자신의 걸음과 똑같이 걷는데도 다른 이의 그 걸음을 틀렸다고 한다. 국민의 눈에 뻗어 올은 걸음이 아닌 것으로 비치는데도 아니라고 잡아챈다. 대통령과 함께 걷고 있는 무리들도 덩달아 날뛰는 것이 이게 앞으로 걷는 것인지 옆으로 걷는 것인지 심지어 가만히 살펴보면 뒤로 걷는 이들도 있다. 시적이 이 지경이라면 우리의 정치는 5년간 제자리를 맴돌 것 같다.

누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을까? 바로 우리들이다. 투표를 했던 우리를, 감정적으로 경멸했고 판단의 기준도 흐려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도 일종의 공무원이고 5년 계약직 대표이사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는 한 4년 뒤에는 또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좀 더 냉철해지고 또 똑똑해져야 한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새해에 명심해야 할 일이다.

가 게걸스럽게 먹는 나를 쳐다보며 웃었다.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우리 시대의 남녀 사이는 지금처럼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다. 광주에서 등하교할 때 마주쳐도 서로 눈빛으로 알은척만 할 뿐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제 내 소설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속물 같은 나는 속으로 웬지 굳건한 독자를 한 명 확보했다는 이의 계산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무명 소설가다운 어쭙잖은 생각이었다.

“인세 많이 받았을 거 같은데...”

그녀가 부러운 표정으로 확신하듯이 말했다. 그녀에게 출판 시장의 현실을 말해야 하는 내 처지가 조금 구질구질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웬지 조그만 기쁨이 반짝거렸다.

배가 불러 음식을 많이 남겼다. 횃집을 나와 우리는 천천히 걸이 가까운 서점에 들렀다. 그녀가 읽고 좋아할 만한 소설을 한 권을 골랐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키터리지’다. 최근에 후속작인 ‘오, 윌리엄!’이 출판되었고 아내에게 권할 정도로 독자층이 꽤 넓은 작가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해지는 생의 후반에 외로움과 적막함과 두려움 가운데에도 인생은 축복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책이다. 쇠락한 육신과 해진 마음에도 사랑이 깃들고 노인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담담하게 보여주는 소설이다. 그녀는 나를 전철역까지 바래다 주었다.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꼭 아가를 옹크리며 걸어가는 우리 나이의 그녀 어머니 모습이 되어 눈앞에서 흔들렸다.

社說

기업 유치 위해 인프라·인력 양성 투자 늘려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그동안 투자 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물류 인프라가 열악하고 우수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탓에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민선 7기부터 인공지능과 자동차,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 유치를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0년 52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고, 이 가운데 50%인 26개가 투자를 완료했다. 예너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 유치가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0년 52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고, 이 가운데 50%인 26개가 투자를 완료했다. 예너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 유치가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0년 52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고, 이 가운데 50%인 26개가 투자를 완료했다.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는 국내외 대기업들이 각종 인프라와 인력 풀이 미흡한 지역 이전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이 꼽힌다. 전경련이 지난해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1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4%가 지방 이전 계획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방 이전 장에 요인으로 시간·비용 증가 등 교통·물류 애로(23.7%)와 인력 확보난(21.1%)을 꼽았다. 이전 희망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대전·세종·충청권이라는 응답이 55.3%를 차지했고, 광주·전라권은 6.6%에 그쳤다. 이송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달 지역 내 총생산 등을 기반으로 17개 지자체의 ‘이주 매력도’를 추산한 결과 광주·전남은 하위권으로 머물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약조건에서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세계 혜택과 입지 보조금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기업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기업들이 우선시하는 것은 효율적인 교통·물류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산학연계 시스템을 강화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제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국제 설계’에 거는 기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이 국제 설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계적 건축가들이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함으로써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국제 지명 초청 설계 공모에 나섰다. 시는 국제적 인지도와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한 국내외 여덟 개 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5일까지 작품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후 기술 검토와 작품 심사를 거쳐 3월 20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 설계가 확정되면 오는 7월까지 부지 개발 사업자와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이번 국제 설계 공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공공성을 살린 창의적 설계로 상업·업무·문화·주거 복합공간이 조성되면 광주 도심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졸속 개발과 지역 상권 위축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동안 광주시 북구 임동 일대의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는 광주 근·현대기의 섬유 산업 역사를 간직할 공간인 만큼, 문화예술을 품은 광주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러한 분위기가 속에서 현대 백화점그룹은 이곳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를 짓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광주 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 구성을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30만㎡에 달하는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는 광주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거듭나야 한다.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최상의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광주시와 사업자, 시민사회단체도 공공성을 살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제 경제 불황의 긴 터널과 마주하게 됐다.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로 인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혹독했다. 금리 인상에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각종 물가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해 들어 난방비 폭탄이 터지고, 공공요금에 이어 과자·생수 등 생활품 값까지 인상이 예고되면서 가뜰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안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는 사실상 본격적인 불황 터널에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기간 경제 불황이 이어질 경우 서민들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고 경제적인 고통은 배가 된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가 뒤늦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민생은 뒷전인 채 서로 상대방 탓만 하며 정쟁만 일삼고 있어 걱정이다. 민생은 정부와 정치권이 챙겨야 하는데 말이다.

민생 경제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최근 이 문장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국민들은 갈등의 정치에 진절머리가 낫고, ‘폭망한’ 민생 경제에 신음만 커지고 있어서다. 민생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 민심의 외침이다.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최근 이 문장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국민들은 갈등의 정치에 진절머리가 낫고, ‘폭망한’ 민생 경제에 신음만 커지고 있어서다. 민생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 민심의 외침이다.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최근 이 문장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국민들은 갈등의 정치에 진절머리가 낫고, ‘폭망한’ 민생 경제에 신음만 커지고 있어서다. 민생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 민심의 외침이다.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최근 이 문장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국민들은 갈등의 정치에 진절머리가 낫고, ‘폭망한’ 민생 경제에 신음만 커지고 있어서다. 민생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 민심의 외침이다.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최근 이 문장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국민들은 갈등의 정치에 진절머리가 낫고, ‘폭망한’ 민생 경제에 신음만 커지고 있어서다. 민생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 민심의 외침이다.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최근 이 문장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국민들은 갈등의 정치에 진절머리가 낫고, ‘폭망한’ 민생 경제에 신음만 커지고 있어서다. 민생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 민심의 외침이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